

2017년 6월 1일자로 보도부탁 드립니다.

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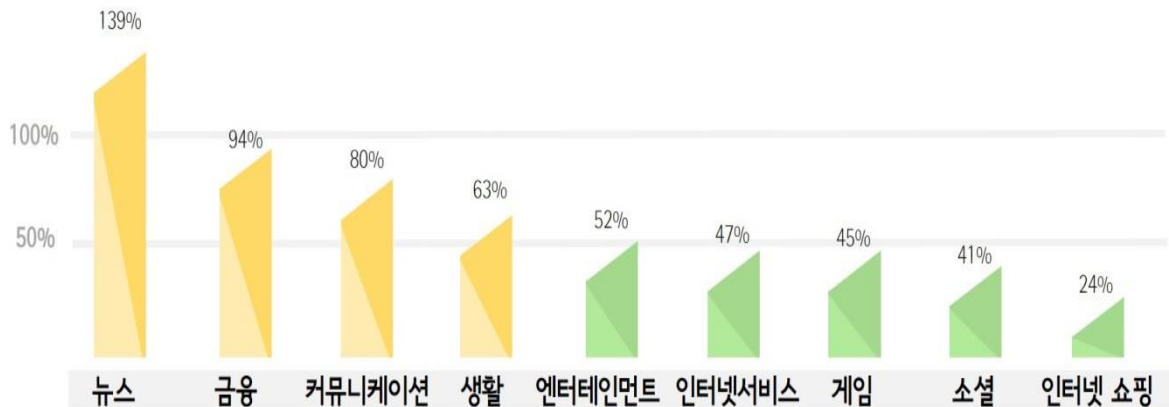
관련 문의: 02-2123-6694 barunict@barunict.kr

스마트한 노인들이 몰려온다, 모바일 뱅킹 이용하는 한국의 실버 세대!

- 노년층, 스마트-폰 사용시간 적은 이유는 낮은 여가관련 앱 사용 때문
- 타 연령층 대비 금융 앱 사용비중 높아
- 단, 학력차이에 따른 스마트-폰 사용격차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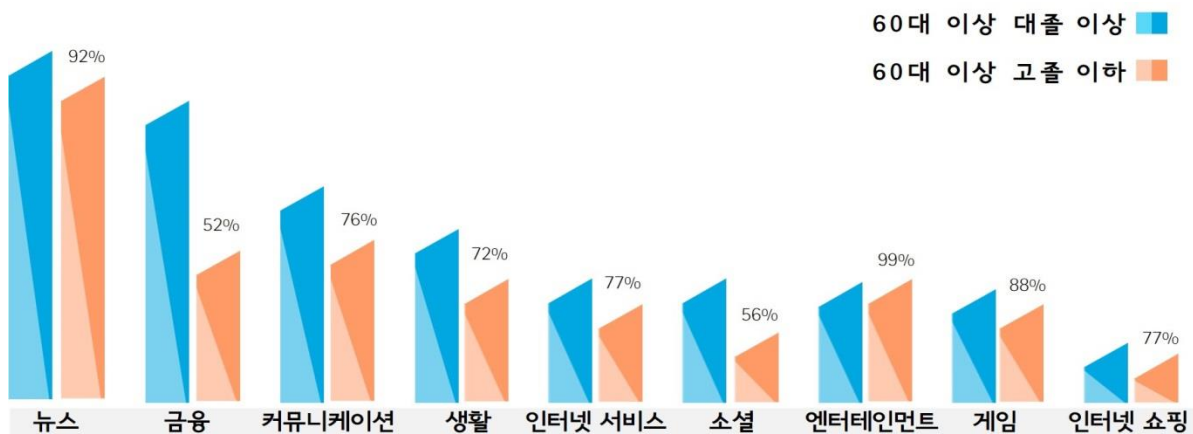
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에서 2016.06.27부터 2016.10.02까지 14주간 전국의 만 7세이상 6,090명의 스마트 폰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, 60대 이상 고령층 스마트-폰 사용시간이 주당 평균시간(18.8시간)이 타 성인연령층(30.1시간) 대비 63%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. 이를 다시 타 성인연령층(20대-50대) 대비 카테고리 별 사용시간 비중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, 뉴스 (139%)의 사용시간은 오히려 타 연령층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, 금융 (94%), 커뮤니케이션 (80%) 앱의 사용은 유사하거나 조금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반면, 쇼핑(24%), 게임(45%), 엔터테인먼트(52%)와 같은 여가관련 앱의 사용은 현저하게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와 같은 노년층 스마트 폰 사용행태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년층 스마트 폰 사용시간이 저하된 인지능력 때문이 아닌 선호하는 앱 카테고리가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.

[그림 1] 고령층의 타 연령층 대비 카테고리 별 사용시간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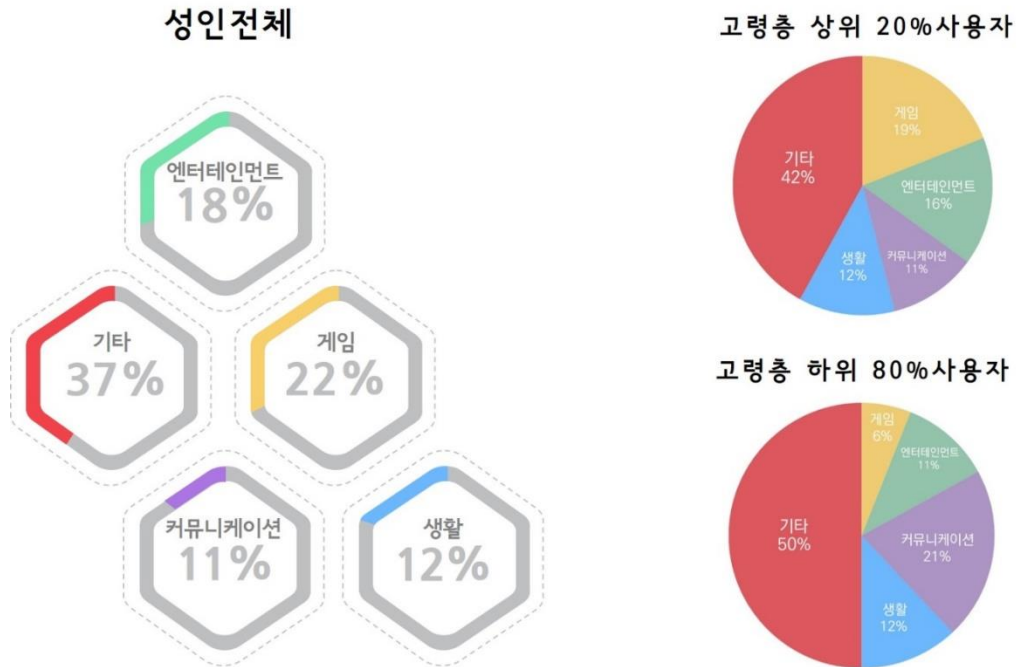
고령층의 경우 학력에 따른 스마트 폰 사용시간 및 이용방법상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. 타 연령층의 경우 학력에 따른 스마트 폰 사용시간 격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(고졸 이하: 27.4시간, 대학재학 이상: 29.5시간),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이와 같은 차이가 두드러지게 발생하였고(고졸 이하: 16.8시간, 대학 재학 이상: 21.1시간), 특히 사용방법이 비교적 까다로운 금융 앱의 경우 학력에 따른 사용시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.

[그림 2] 고령층의 학력에 따른 모바일 앱 사용시간 비교



한편, 고령층의 스마트 폰 중독 위험은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. 이는 사용시간 기준 상위 20% 사용자를 스마트 폰 중독 위험이 높은 과다사용자 그룹으로 분류하였을 때, 이들의 주당 평균 사용시간(41.8시간)이 타 연령층 대비(59.8시간) 매우 낮았을 뿐 아니라, 카테고리 별 이용패턴 또한 보다 분산된 형태를 띄고 있었기 때문이다. 보다 세부적으로, 고령층 상위 20% 과다사용자 그룹은 하위 80% 일반 사용자 그룹보다 게임(6%→19%)과 엔터테인먼트(11%→16%) 앱의 사용 비중이 높고, 커뮤니케이션(21%→11%) 앱의 사용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 하지만, 이와 같은 고령층 과다사용그룹의 앱 카테고리 별 사용시간 비중은 타 연령층의 일반사용자 그룹의 그것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므로(게임: 22%, 엔터테인먼트: 18%), 고령층의 스마트 폰 중독위험이 매우 희박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.

[그림 3] 고령층 상위 20% vs. 하위 80% 스마트-폰 사용패턴 비교



이번 데이터 분석결과, 60대 이상 고령층 스마트 폰 사용은 비록 사용시간은 적지만 다양한 용도로 잘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. 이는 고령층의 사용시간 저하가 노년층의 인지능력 혹은 학습능력 저하에 따른 스마트 폰 활용능력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층의 외부활동증가와 관련된 것이었으며, 과다 사용그룹의 스마트 폰 중독위험 또한 타 연령층 대비 매우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이다. 한편, 고령층의 경우 다른 세대에 비해 학력에 따른 스마트 폰 사용상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, 이와 같은 노년층의 스마트 폰 사용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. 첫째, 스마트 폰 사용교육에 있어 전체 사용자 집단이 아닌 특정 사용집단에 초점을 맞춘 선별적 사용교육이 필요하며, 둘째, 노년층의 신체기능 저하를 고려한 맞춤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. 즉, 노년층 스마트 폰 사용은 중독이 아닌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하며, 학습이 아닌 접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.



모바일 홈페이지

<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>

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올바른 ICT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설립됐다. 스마트 감성시대에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문화적 현상과 이슈를 연구하여 'IT로 보다 행복하고 연결된 삶을 실현'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 연구진 및 기업/공공기관 전문가들과 연계하는 열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.

문의: 바른ICT연구소 정보가치 연구팀 임지선 연구원